

2019학년도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임사회)		위 원 장	학 교 장
회 의 록			
○ 일시 : 2019년 10월 22일(화) 18:00			
○ 장소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회의실(학교본부 2층)			
○ 출석위원(6명) : 000, 000, 000, 000, 000, 000			
○ 불참위원(5명) : 000, 000, 000, 000, 000			
○ 참석교직원(7명)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회 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보고사항 5. 위원장 개의선언			
6. 안건심의 7. 폐회			
○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1. 2020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			
2. 2020학년도 교과용도서 선정			
간사 (000)	안녕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총무부장 000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학년도 제5회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임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11명 중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신 다섯 분을 제외한 여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성원 충족 요건인 여섯 분 이상이 참석하였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9월 새로 취임하신 000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장 (000)	안녕하세요. 새로 취임한 교장 000입니다. 취임 후 첫 운영위원회 회의인데 직접 찾아 뵙고 인사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교가 2학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학교 모습으로, 발전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000)	다음은 000 위원장님의 개회사 및 개의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000)	개의선언을 하겠습니다. 11명 위원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학년도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간사님께서서는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OOO)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는 총 1개의 의안으로 「전북기계공고 공모교장 1차 심사위원회 구성(안)」이 있었고 심의 의결된 대로 잘 진행되어 지난 9월 1일 전북기계공고 제13대 교장선생님으로 OOO 교장선생님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OOO) 본 회의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3건인데, 일단 제1, 2의안을 상정·심의하고 제3의안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되면 상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제안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의안 2020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안)

안녕하십니까. 교무부장 OOO입니다. 2020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하던 교육과정을 고교학점제에 맞추어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
(OOO) ○ 2020학년도 1, 2, 3학년 교육과정 편성(안) 주요내용
- 보통교과 : 74단위
- 전문교과Ⅱ : 112단위
- 창의적체험활동 : 24단위
○ 전공별 교육과정 편성표(첨부 서류 참조)

위원장
(OOO)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OOO)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는 현장실습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실습 시간이 편성되어 있나요?

제안자
(OOO) 정규 교육과정이에요?

위원
(OOO) 예, 3학년은 현장실습을 나가는데 올해부터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안자 (OOO)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현장실습을 최대 4주(동안 기업체에서) 했었는데 (올해에는) 3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2주 동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현장실습 교육을 받고 지금 (기업체에) 나가는 학생들은 최대 2주간 (기업체에서 실습을) 하고 학교에 돌아와 채용계획서를 다시 준비해서 취업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OOO) 각 학교가 올해부터 현장실습이 어떤 사고 때문에 전면적으로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학교는 어떤지 여쭙봤습니다.

위원 (OOO) 질문 겸 의견인데요. (교육과정 편성이) 210단위로 기본설계가 되어있는데, 아이들의 배움이 여백이 없다는 점 한 가지와 또 하나는 2020학년도 1학년 아이들은 192학점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210단위로 설계되어있어요.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아이의 공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의 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수업을 개선하거나 해서 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을 기본적으로 204단위로 최저 이수만 하고 아이들이 자율 활동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선생님들이 수업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도 하고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습방법을) 바꾸는 게 좋은 것이지 수업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아이들한테 공부시간을 많이 주었는데 공부를 못하면 '이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204단위로 재설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은 192학점에 맞게 설계를 해서, 그 아이들부터는 의무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학교는 어떤 고민 속에서 210단위로 계속 설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자발성이나 능동성을 키우는 게 중요해서 저는 204단위로 편성하기를 요청 드리면서 질문 겸 의견을 냈습니다.

제안자 (OOO)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난 교장선생님 계실 때 210단위를 고수했는데 신임 교장 선생님 오셔서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여유시간이 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안건 제안을 드린 것이고, 좀 더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204단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뒤에 그런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준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204단위로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192단위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될 게 192단위입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라서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실제로 선생님들은 과목수가

제안자
(OOO)

늘어나니까 시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 신입생들은 기본교과(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선생님들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다양한 과목을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OOO)

그런데 210단위로 (안건을) 통과하는 것하고 다음에 의견을 내놓는 것 하고는..... 이미 편성을 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또 다르게 하신다는 것인지.....

제안자
(OOO)

단위수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다보면 꼭 이 과목은 3단위를 해야 되느냐, 2단위만 해도 충분한 과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위수를 204단위로 조정을 하는 것을 두 달 정도 더 논의를 해서 (안)을 드릴 생각입니다.

위원
(OOO)

편성이라고 할 때는 교과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여기서 승인하자고 하는 것이고 차기 회의에서는 단위수는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런 제안은 없었잖아요? 이미 210단위로 하자고 해놓고, 이미 없으면 통과하자고 얘기하면 그래도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될 수 있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학교가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고교학점제를 빨리 도입하고 아이들의 자발성이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점수를 매길 때 2020학년도 입학생들부터는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의 학생들은 기존 법이 적용되는 것이니까 운영은 학교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고교학점제의 형태로 최대한 바꾸어서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교장
(OOO)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2단위는 최소 이수단위이거든요. 그 이상을 하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다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하면, 최소 이수단위인 192단위로 만드는 것은 여러 개의 교과목이 설강이 되었을 때 선생님들의 수업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수단위가) 커진 것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설강과목이 줄어든다면 192단위보다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그 부분까지 보충하고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OOO)

예를 들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방과후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꼭 이렇게 지금 1학기, 2학기처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다양한 고민들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4/4분기로 나누어서 세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게 하고, 다양하게 접하게 하려면. 그래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 비슷하게, 예를 들면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한 10명만 모아져도 학교가 최대한 그것을 개설해주고. 특히 학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자격증 시험 볼 때 불만들이 좀 있어요.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이론은 알아서 봐라, 문제집 풀어서 봐라하는 상황인데 보통 3개월마다 자격증 시험이 개설되는 거죠? 그럼 이 때에 맞추어서

위원
(OOO) '전기기능사 시험을 보고 싶다, 이번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 모아지면 한 달은 이론공부를 하고 두 달은 실습을 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학교가 좀 더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하면 좋겠다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유연하게, 저는 고교학점제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학교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안자
(OOO)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OOO)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사항이 있습니까?(없음)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번 회의 때는 편성(안)을 결정하고, 이수단위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 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가부를 손을 들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제1의안인 2020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OOO) 다음은 제2의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안 2020학년도 교과용도서 선정(안) 안건설명

제안자
(OOO) 안녕하십니까. 교무부장 OOO입니다. 2020학년도 교과용도서 선정에 관한 (안)입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과 현재 3학년 학생들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학생들로서 내년 2020학년도부터는 3학년 학생들에 대한 교과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새로 바뀐 신입생들과 3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과목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한 자료로 첨부된 회의자료를 보시면 교과용도서 선정목록이 있습니다. 선정평가표와 선정협의회를 거쳐서 교과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2020학년도 교과용도서 선정(안) 주요내용

- 교과협의회를 통해 작성한 교과용 도서 추천의견서 및 각 교과 교사들의 교과서 평가 총괄표

위원
(OOO) 다른 과목들은 안 바뀌고 (회의자료의) 이 과목들만 바뀐다는 것인가요?

제안자
(OOO) 네, 그렇습니다. 교과용도서를 선정할 때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인정도서입니다. 여러 개별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 중에 선생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정한 교과서에 대해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OOO)

검정교과서와 인정교과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교사
(OOO)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과용도서 담당교사 OOO입니다. 검정도서는 국가, 큰 기관에서 따로 선정해서 그 도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인정도서는 따로 교육청에서 만들어졌거나 다른 작은 기관에서 만들어진 경우 인정을 받습니다. 검정은 좀 더 큰 개념이고, 인정은 작은 개념이라고, 그렇게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장
(OOO)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을 해주는 것이고, 인정도서는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교육감이 인정한 도서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모든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OOO)

그러면 여기 있는 10개 과목은 기존에는 다른 교재로 사용했던 것인가요?

제안자
(OOO)

다른 출판사 교재로 사용했던 것도 있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같은 교과목이라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개발된 교과서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정된 과목들입니다.

위원
(OOO)

과에서 선정한 것인가요?

제안자
(OOO)

예.

위원
(OOO)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학과에서 다 선정해주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과연 이 교재가 정말 좋았다는 점이 검증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사들만 이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했는지, 교재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단 검증이 되어야 하고, 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격증 시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교재가 어떤 출판사의 것이 좋겠는지 등 자율적인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이 교재만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자
(OOO)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을 분석합니다. 교과목의 성격이나 목표, 내용, 교육방법, 성취기준 등을 분석해서 그것에 가장 적합한 도서인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취업, 자격증 취득 등에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제안자 (OOO)	<p>심화내용 등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 각자 개인적으로 평가서를 채점하고 협의해서 교과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교과서가 좋다,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려면 다섯 종의 교과서가 있다면 학생별로 이 다섯 종의 교과서를 다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학생들이 이 과목을 배우기 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교과서를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p>
위원 (OOO)	<p>저희가 교재를 잘 모르잖아요. 기존의 사용했던 교과서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전에는 저 교과서를 썼는데 이번에는 왜 이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p>
제안자 (OOO)	<p>다음에 안전심의 할 때는 출판사별로 샘플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p>
교장 (OOO)	<p>2009 개정교육과정이 올해 3학년까지 적용이 됐어요. 내년 2, 3학년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 똑같은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편성지침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름은 같더라도 교과서 내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실용수학의 교과목에 큰 단원은 같지만 그 단원을 기술하는 과정 중에서 출판사별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술하는 곳도 있고 어렵게 기술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생들에게 이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정해서 올린 것입니다.</p>
위원 (OOO)	<p>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을 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할까를 생각해보면, 교과용도서 선정에서 비리가 발생할까봐 심의하라는 것인데, 좀 알아야 심의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p>
교감 (OOO)	<p>위원님들께 잠시 도움이 되기 위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과서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정 교과서는 국가에서 발행한 교과서로 보시면 되고 인정교과서는 민간인이 만들어서 국가의 승인을 받는 도서이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만드는 것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정받아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교과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내용 등이 부실하면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교과서는 학교 단위에서 담당 선생님이 재구성해서 학생 수준과 능력에 맞게 평가도구 등을 개발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위원장
(OOO) 특이사항 있습니까?(없음) 선생님들이 심의하고 평가해서 선정한 도서이니까 이상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회의 때는 이해가 좀 더 쉽도록 자료를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자
(OOO) 네. 샘플 자료라든지 교과서에 설명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OOO)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없음) 추가 질의나 수정 발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가부를 손을 들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제2의안인 2020학년도 교과용도서 선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 제3의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다음 회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회규정 개정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8명인데, 지금 현재 11명위 위원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이 안건은 차기 회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전에 O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안건은 아닙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OOO)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학교 홈페이지를 보다가 예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학교 학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2019년 4월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서가 공개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1,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행정실장
(OOO) 제가 답변 드릴까요? 맞춤형복지 교직원 구매는 학교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일종의 수당을 본인들 동의하에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
(OOO) 수당을 상품권으로 준다는 건가요?

행정실장
(OOO) 네. 예를 들면, 중기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공립학교도 마찬가지로인데, 희망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OOO) 아, 이것은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행정실장
(OOO) 네, 선생님들에게 주는 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OOO)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건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많이 알려지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고민을 했는데, 학생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학교가 좀 뒤돌아 봐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 이미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거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배경은 이 글을 저희 아이가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후에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10월부터 좀 더 다시 마음잡고 이야기 해보자 하고 얘기 했는데, 아이가 이 글이 올라왔다고 보내와서, '왜 보냈는데? 이 글이 언제 쓰인 글인데?' (물어보니) 2주 전에 이 글이 쓰였고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다시 내려갔대요. 그러면서 아이는 자기가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면서 얘기했을 때 잘 호응도 안하던데 이 애는 대놓고 얘기 안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지? 그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도 좀 당황스럽다면서 저한테 글을 보냈고 또 하나는 자기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진 친구가 또 있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 글을 받고 교장선생님하고 아이 문제 상의하고 학교 문제가 이런 게 있으니 교장선생님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 며칠 전에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시험 바로 전날에 아이들 점호할 때 글 올린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 학교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나 방향이 숙성되어 있지 않은데 너무 미리 얘기한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가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이나 관례들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문제를 극복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들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괜히 얘기를 했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극복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제기한 아이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선생님들은 아직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학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OOO)

교감선생님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이 내용이 현재도 이렇다면 제가 한 38~9년 전에 (학교를) 다녔던 행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정말 맞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곧이곧대로 100% 믿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자중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갑자기 숙연해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정말인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 보다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
(OOO)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난번에 OOO 위원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고, 어찌 되었든 간에 심각하다 그리고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비록 우리 아이들이 기숙사에 많은 인원이 있지만 나눠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실천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단칼에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죄송하게도 약간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저희가 내년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구성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OOO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 와보니까 잘못하면 학교에만 매몰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교육청에 있다 와보니까 밖에서 볼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었어요. 교육적 정책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느낀 점도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포괄적으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저희들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OOO)

먼저 번에 교복 문제하고 기능영재반 관련해서 교장선생님과 (사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잘 되어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교장
(OOO)

기능영재반이 이번에 대회를 나가서 은메달 1, 동메달 2개를 땀습니다. 세 개의 직종에서 입상을 한 것이죠. 약간 우리학교 전통에 비교해보면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교장
(OOO)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지적이 되었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전국대회 끝나자마자 관련된 분들과 토의를 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 모셔오고 아이들 선발하자라는 것에 의견은 모아졌거든요. 빨리 저희들이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OOO)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어떤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감 선생님으로서는 이 아이의 이야기가 기숙사에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화도 나고 그러셨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학교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장선생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문제를 얘기할 때도 교복이 단지 상징적인 것일 뿐인 거라 교복 자체에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내어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 질 수 있겠느냐, 이 학교의 문화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저는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셨던 선생님들이 (이 글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어내는 식이 그동안의 학교 문화였다면 저는 '이게 정말 교육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아이들이라도 어떻게든 이 학교에서 뭔가 자기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전학하려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배우는 과목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교우관계가 안 좋아서, 나머지 하나는 학교문화인데, 이 아이가 지적하는 것은 학교문화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중학교까지 배웠을 때는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학교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고..... 학급회의 같은 게 한 학기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이번 주에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겨우 한 달 동안 논의해서 우리가 학교를 좀 더 차근차근 바꿔보는데 같이 노력해보자 했는데 선생님이 맘에 안 들면 떠나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아이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할지 정말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두 가지를 당부 드리고 싶은데,

위원
(OOO)

하나는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찾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충분히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현재 사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학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빠르게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학교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을 고민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은 사실이고, 그 아이가 표현이 거칠었을 뿐이지 모두들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은 그러려니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았다면 이 아이는 표현했다는 것. 저는 이 아이가 이 표현을 왜 학교 안에서 못했을까 하는 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학교가 이것을 받아줄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가 밖에 얘기하는 수준까지 가버린 게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위원장
(OOO)

저도 할 얘기는 많은데, 교장선생님께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기능영재반도 마찬가지잖습니까. 한 학생이 전담교사 없이 왔다는 거, 그 학생이 기능경기대회 나가서 입상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입상조차 못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학부모의 마음은 어떨는지. 아무튼 이런 문제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교복은 먼저 번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위원
(OOO)

교복은 교장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어떻게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장
(OOO)

충분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위원
(OOO)

교장선생님께서 교복을 바꾸는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OOO)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록자 0 0 0